



김만섭
사) 한국오리협회장

쇠고기 수입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가운데, 연일 뉴스의 첫번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있다. 많은 오리사육 농가가 생떼같은 오리들을 살처분하는 광경을 무력하게 바라봐야 했고, 소비자들의 차가운 외면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소비는 좀처럼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장관급, 비서관들, 각료들을 모두 수십억대의 부자들만을 뽑아서 그들만을 위한 정책만을 펼치려고 하고 90%의 서민들을 위한, 즉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있기는 한 것인가? 새 정부들어 대통령부터 모든 각료가 바뀌면서 최근 몇달 동안 많은 시행착오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 보여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진정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참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권한만 가지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할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언론이며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인가?”



2008년 4월 1일, 전북 김제에서 첫 번째 AI가 발생한 이후 33차까지 발생한 현재까지 딱 두 달이 흘렀다. 지난 5월 12일 이후로 지금까지 더 이상의 AI 신고건은 없는 상황으로 조심스레 AI 발생이 소강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AI 발생이 잠잠해지면서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기는 하지만, 낱알이 보도되는 의혹성·추측성 언론보도로 인해 바닥까지 추락한 오리고기 소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업계의 종사자 중 한 사람인 필자 또한 한숨만 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우리 오리업계 회원들과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가금단체 회원들이 전국에서 집결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그 동안 AI의 확산을 막고자 집회 등 모임을 자제했었지만 정부와 언론의 합동공격에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진실만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언론사와 누구보다도 우리 가금업계 편에서 산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이 마치 산업자체를 말살시킬 기회라도 잡은 듯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소비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등 되려 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어찌 손놓고 바라만 볼 수 있는가 말이다.

5월 16일 집회 중 필자가 보고한 'AI 발생 이후 정부 기관과 언론사의 태도와 대응상황'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국민 중 900만이 AI에 감염된다는 설과 조 모 사병의 인체감염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여기에 식약청이 각 시·도에 '전국 오리고기 유통·판매·조리 금지 처분'에 관한 공문을 하달하면서 언론사는 물 만난 고기처럼 더 크게, 더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데 열을 올렸다.

또한, 서울신문에서는 5월 22일 「AI 인체감염 안전지대 아니다」, 5월 26일 「정부, 2006 AI도 위험성 축

소」 기사를 통해 확실히 판명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체감염 의혹을 드러내 본회를 비롯해 가금단체에서 거센 항의와 시위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끝끝내 시정보도나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우리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꼬마아이들까지도 AI 감염축은 유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 걱정되면 75℃에서 5분 이상만 열처리 하면 문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왜 소비자들이 오리와 닭 먹기를 꺼리는가? 바로 질병관리본부나 각 언론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체감염설 때문이다. 도대체 왜 확실치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확대해석하고 보도하여 "오리·닭" 하면 "인체감염 될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가!

관련 전문가나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떡밥 던지는 식의 생각 없는 언급이나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한 번 내뱉는 말은 국민들 사이에 파급력이 크고 자칫 일파만파 커질 수 있으니만큼 추측성 멘트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언론사들 또한 '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마구잡이 보도로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되며 진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로 밝혀진 내용만을 보도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와 정부는 가금산업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가 부메랑이 되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